

배포 일시	2022. 6. 9.(木)			
담당 부서	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 (02-2131-2040)
		담당자	사무관	장승권 (02-2131-2037)
	환경부 토양지하수과	책임자	과 장	이정용 (044-201-7170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보 (044-201-7174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.

< 관련보도 주요내용 ('22.6.9일, SBS) >

- ◆ (SBS) 용산공원 시범개방... 땅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관찰을까 우려도
-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오염물질로 땅이 오염된 상태

□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제인 정부에서 '21.4월 결정된 사안이고, 국토부는 '20.12 반환받은 스포츠필드 구역부터 임시 개방을 준비해 왔습니다.

* ('21.12.8, 국토부 보도자료) 스포츠필드 등을 공원 조성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

○ 9월 전면 임시개방에 앞서 6월 시범개방을 하는 이유는 용산 공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.

□ 이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전체 반환부지(63.4만㎡) 중 약 16%인 10만㎡로 주한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수십년 간 일상생활을 하던 학교, 숙소 등이 위치한 곳이며

○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방을 준비하였습니다.

① 환경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도로포장, 잔디식재 등을 통해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였습니다.

② 특히, 방문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펠드 지역은 이미 환경 저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.

③ 과거 부산시민공원(캠프 하야리아)도 오염정화 전에 개방한 사례*가 있으며, 이번 시범 개방 계획도 선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.

* (임시활용) '10.4~'10.9월 ⇨ (오염정화) '11.4~'12.8월 ⇨ (공원 개장) '14.5월
-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

□ 금년 하반기 임시개방에 앞서, 시범개방 결과와 위해성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더욱 철저한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.

○ 저감조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측정 등 위해도 검증을 실시하여, 향후 공원 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 용산기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후에는 ‘토양환경보전법(환경부)’에 따른 오염정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○ 일반국민들이 용산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